

왕 (마태복음 2:1-12)

1. 우리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. 그래야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. 그러나 세상은 이런 눈이 전혀 없다.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해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른다
2.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. 그러나 그들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.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 복음은 이미 전달되어 있다. 그들이 받지 않았을 뿐이다.
3. 롬1:20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다.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다 보인다는 것이다. 그리고 5000종 족 중 문명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 안다. 그래도 수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관심이 없다.
4. 나중에 심판 당할 때에 나는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.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바로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. 이 놀라운 구원을 알지 못했으면 어쩔 뻔 하였는가
5.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.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닌가.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려 오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인생이 저주에서 나온다. 결국은 문제를 정복하고 인생도 정복한다. 세상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정복하고 오히려 문제를 누린다. 이기는 정도가 아니다. 사단이 아주 기가 찰 노릇이다.
6.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이랬다.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며 그 답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.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다.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동일했다.
7. 다시 한 번 언약으로 잡자. 그리스도가 내게 언약이 되면 인생이 저주에서 나온다. 이런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들어 오고 응답이 온다. 이렇게 하여 100년의 응답에 이르고 인생 작품에 도달하는 것이다.
8. 이러한 중에 그 언약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계속 사단을 꺾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.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이것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. 아예 완전 완성하셨다는 뜻이다. 잊지 말고 오늘도 다시 한 번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

1. 왕

- 1)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고 있다. 그리하여 우리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

-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단의 머리를 깬 왕으로 받으면 된다.
- 2) 1절의 박사라는 사람들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당대의 최고 석학들이다.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. 그들이 어느 날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군가 하고 찾은 것이다.
- 3) 그들은 그 별이 보통 별이 아니며 그것은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인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알고 있었다.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 황금, 유향, 몰약 등 귀중한 것을 가지고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왔다. 특별히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예물이다.
- 4) 이 이야기를 마태가 왜 썼는가 하는 것이다. 마1장은 족보와 예수님이 성령 잉태를 통하여 처녀 마리아에게서 났고 기록하고 있다. 그리고 나서 2장을 바로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그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으로 오셨다고 먼저 기록하고 있다.
- 5) 여기에 마태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. 1장의 족보를 통하여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그것은 족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. 그래서 그는 이미 우리에게 오래 전부터 약속되었던 바로 그분이라는 설명이다. 그리고 1장 18절부터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지 어떤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 말고 아내로 데려 오라고 천사가 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.
- 6) 그리고 2장 처음에 그가 왕으로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.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.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설명한 말씀이 창3:15이다. 뱀의 머리를 깨러 오신 그리스도다.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한다.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을 먼저 설명하셨다. 선지자 제사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.
- 7) 하나님은 여하튼 가장 먼저 왕을 말씀하시고 싶어셨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.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신다.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첫 번째 말한 문장에서 왕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서 1장에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왕되신 그리스도를 먼저 말씀하셨다.
- 8)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. 사단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. 이것을 죽이면 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왕을 말씀하셨을 것이다. 이것을 죽여야 문제 해결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. 이것을 죽이

기 전에는 절대로 완전해결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왕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 것이다.

- 9) 우리가 그리스도의 3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.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오늘 다시 한 번 사단을 죽여야 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.
- 10) 먼저 사단의 머리를 깨야 한다. 그래서 마12:29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하셨다.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. 사단을 죽이러 오신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.

## 2. 세상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

- 1)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. 헤롯이 완전 정신이 나갔을 것이다. 당대 최고의 박사들이 와서 자신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너무나 당연하다. 그래서 가만히 그 박사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당연히 불발이었다.
- 2)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기겠는가.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기겠는가. 영원히 불가능이다.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다. 절대로 그들의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.
- 3) 그러므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마음 주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에 줄 서지 말아요. 인간 왕은 아무 힘 없다.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 낭패를 당할지 모르는 인간 말을 왜 들겠는가.
- 4) 우리는 메시지 속에서도 자주 듣는다.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. 불신앙 소리 듣지 말라 하지 말라. 남의 말 하지 말라. 사람 소리 듣지 말라. 그냥 참고 하고 넘어가라.
- 5) 말씀을 잡아라.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. 말씀을 따라가라. 이런 종류의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는다.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. 우리가 왜 사람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 가겠는가.
- 6)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파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. 그 다음 날 죽을 줄 모르고 .....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을 따라 간다는 말인가. 내일 일을 전혀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왜 인간의 소리를 따라 갈 거냐 그 말이다.
- 7) 말씀을 잡아라.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라. 말씀이 없으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. 그것으로 인생 끝이다. 반드시 100년 응답 오지 않겠냐. 성경이 그렇다고 증명한다. 언약을 받아라. 주시라고 해라. 그러면 주실 것이다.
- 8) 말씀을 정리합시다. 예수님은 저주에서 해방이다. 우리를 사단의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다. 믿어야 된다.

간단하고 선명하다.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. 이것을 믿어야 한다. 잊지 말고 믿어야 한다.

- 늘 고백하고 다시 언약으로 잡는 행위를 지속하여 이것이 내게 언약이 되고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.
- 9) 그리고 왕으로 오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. 선지자직, 제사장직도 아주 중요하다. 그러나 성경은 가장 먼저 왕직을 말씀하고 있다. 사단을 죽여야 인간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. 이 눈이 열려야 한다. 영안이다. 이것을 가장 먼저,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.
  - 10) 그리고 정말로 이제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따라 가기를 바란다. 말씀이 언약으로 들어 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. 따라갈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을 잘 살펴 보라. 그 사람 언약 없다. 언약이 있는 사람이면 내게 영적인 감동을 주는 말을 할 것이다.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말 못한다. 왜냐하면 자신에게 언약이 없기 때문이다.
  - 11) 그런데 그런 사람 말에 왜 영향을 받겠는가.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왕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사단을 결박하므로 내가 먼저 눈을 뜨고 이 눈을 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. 그리하여 그 사람도 살려야 될 것이 아닌가.
  - 12)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주 중대한 결단도 하고 왕의 언약에 뿌리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.